

2021. 'Dream-Job-Key(꿈키)

진로특강 소감문

실시일 : 2021년 5월 17일(월) 대제중학교

★ 직업인 : 직업명 (소방관) 명예 교사 성함(임태규)

* 소감문 작성 요령 : 검정색 볼펜 사용

1. 서두: 직업인에 대해 알고 있었던 내용이나 직업인을 만나기 전의 느낌·생각을 쓴다.
 2. 본문: 새로운 정보나 강의 내용을 체계화하여 정리하면서 생각이나 느낌을 곁들여 쓴다.
 3. 결미: 직업의 의미와 필요성, 강연 내용을 자신의 진로와 관련지어 생각해 본 것, 자신의 꿈, 포부나 각오 등에 대해 쓴다.
- * 위의 내용은 여러분이 소감문을 작성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여 제시한 자료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우수 소감문은 시상 예정]

평소 소방관이라고 하면 항상 화재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일만 한다고 나는 생각하였다.

그래서 직업인 강의를 듣기 전에는 “강의 내내 화재와 관련된 강의를 들겠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소방관님의 강의를 듣고 난 후 나의 생각이 많이 변하였다. 소방관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친절하고, 열심히, 덜 자주하게 강의를 해주셨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정보를 많이 알게 되었다. 먼저 소방관님의 강의는 소방관들은 화재만 진압한다는 내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다. 소방관은 화재현장 뿐만 아니라 사고현장, 현명구조현장에 출동하여 화재진압 뿐만 아니라 사람을 구조하는 일도 하시고, 건물들을 돌아다니면서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의 안전장비와 장치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검사도 하시고, 또한 우리학교에 오신 소방관님처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기관을 방문하시는 소방관, 소방서 홍보와 안전교육을 하시는 등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참 다양하고, 많은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이번에 새로 알게 되었다. 그만큼 하시는 일이 많다보니 보람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힘든 일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고 느꼈다. 화재현장, 구조현장에서 사람이 죽고 다치는 처참한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아야 되고, 자신의 목숨 또한 보장되지 않는 위험한 곳에서 때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말 사람으로서 견디기 힘든 순간이 수없이 찾아올 것만 같아 강의를 듣는 동안 한데카운 마음이 컸다. 그리고 1분/초가 급한 소방관들에게 술에 취해서 장난전화를 걸어 난동을 부리거나 공중화장실에 휴지가 없다는 이유, 핸드폰이 하수구에 빠졌다는 이유 등의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로 소방관분들의 노고를 헛수고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화가 났다. 또한 최근, 교대근무 등 각종 피로도 겪쳐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며 정말 소방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고, 그렇기에 소방관 분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큰 감명을 받은 부분이 바로 “무엇보다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었다. 소방관이 되고, 소방관으로 일하려면 공부도 중요하고, 강韧한 체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인성이 갖추어져야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 이었다. 나는 그 말씀에 강하게 공감이 되었다. 모든 일의 그럴겠지만 데굴다다 소방관은 봉사정신, 희생정신이 부족하면 하기 힘든 일이다. 그런데 인성이 좋지 않으면 자연 날을 위해 내가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내 장래희망이 꼭 소방관은 아니지만 내 미래 꿈을 이루기 위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공부도 당연히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것으로만 끝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닌 항상 인성을 갖추어 타인을 대하고, 모든 일에 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런 강의를 통해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잘 알게 되었고, 앞으로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기회였다. 좋은 강의를 해주신 우리학교 선배님이시자, 제천소방서 소방관인 임태규 소방관님에게 정말 감사드린다.

2021. 'Dream-Job-Key(꿈키)

진로특강 수강문

실시일 : 2021년 5월 17일(월) 대제중학교

번

★ 직업인 : 직업명 (소방관) 명예 교사 성함(임태규)

* 소감문 작성 요령 : 검정색 볼펜 사용

1. 서두: 직업인에 대해 알고 있었던 내용이나 직업인을 만나기 전의 느낌·생각을 쓴다.
 2. 본문: 새로운 정보나 강의 내용을 체계화하여 정리하면서 생각이나 느낌을 곁들여 쓴다.
 3. 결미: 직업의 의미와 필요성, 강연 내용을 자신의 진로와 관련지어 생각해 본 것, 자신의 꿈, 포부나 각오 등에 대해 쓴다.
- * 위의 내용은 여러분이 소감문을 작성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까하여 제시한 자료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우수 소감문은 시장 예정】

소방관이 하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나는 진로특강을 듣기전에 나 자신에게 질문을 했다

던져 보았고, 첫번째는 현재진况. 그리고 인명구조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일을 같았다. 그것만은

고마운 이것들만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나는 직업특기들을 듣기 시작했다. 일단 소방관은 크게

3가지로 나누었었는데 소방공무원, 의무소방관, 의용소방관이였다. 특히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관은 들었을 때에는

모습 소방관 인지 알고 있었지만 의무소방관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의무소방관은 구성된 소방단체라고

는 것 그 다음으로는 소방서의 구성을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나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았다. 나는 소방서는 그저 상황실과 출동하는 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소방서는 그뿐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 일은 대체로 소방서는 소방총괄 소속으로 팀으로 되었었는데 나는 사실 여기서 놀랐다.

소방공무원이기 때문에 학생복 소속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보니 나는 복무하는 소방성이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소방서에서는 재난 ^{대응}과 예산·정비·인력·비상 등 여러 가지를 볼류되어 있었고 출동하는 부대는

구조대와 출동대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 다음으로 설명해 주신 점은 구조대의 훈련이였다. 이 구조대는

현재진况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물놀이사고, 실종사고 등 모든 사건에 대응하는 팀이였다. 이들은 훈련하는 적재로

이 거의 대부분 특전사, 해병대, 육군 등 출신이라고 듬었다. 이들은 이 복무의 훈련에 대해 각세하고 설명해 주었는데

장기화되는 재난현장에 대처하기 위해 예상되는 여러 물건에서의 생기는

인명사고를 대응하는 훈련이 대표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재난현장에는 해적훈련과 구조대현장 진입훈련인데 이 두 가지는 예상에

맞아 험하게 예상 했던 훈련이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훈련을 약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원생이나 대학원생

꼭 학생이고 해석했으나 정말 힘드신 걸 깊이 알았다.

이제서 강의를 듣고 나니 문득 소방관님들의 노력이 느껴졌다. 능숙한 무리의 전진방법으로 구리를 터뜨려

나는 그 복무의 노고에 감사함을 보낼 뿐이다. 만약 소방관은 복무의 업무는 어떤가? 현재현장에서

손을 먼저 놔보면 사람도 없을 것이다 물놀이에서 배너를 때 나를 잡고 미끄러울 예상은 없을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에 죽거나 다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그 복무를 하는 직업이 아닌

한나의 나인 대신 벌이는 존재로 생각된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안전벌이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일까?

내가 그런직무를 가질 수 있을까? 만약 그런 직업을 찾기에는 대체 해야하는 합법적, 민족 존엄성에 대해

생각을 해 보게 되었다. 내가 만약 직업이 생기고 사회에 나아가게 된다면 좋은 내가 좋아하는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한전직업을 갖는다는 가장 친한 친구 같은 사람의 되고 싶다.